



연변단풍수필회 회원 작품집

단풍잎

연변인민출판사

연변단풍수필회 회원 작품집



단 풍 일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방복순

책임교정: 최순란

삽 화: 홍성호

기술설계: 정선숙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枫叶: 朝鲜文 / 延边枫叶随笔会编.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9

ISBN 978-7-5449-0403-2

I. 枫… II. 延… III. 随笔-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67.1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136190号

枫 叶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9.875 字数: 265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403-2 (民文)

版次: 2008年9月第1版 2008年9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22.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차 례



리홍규 편

위대한 모택동	2
간단치 않은 작가의 도-	
“책 만권 읽고” “만리길 걷다”	12

현룡순 편

“5호전사”	20
거적문	25
슬픈 조우	32

오태호 편

마음의 철학	39
렴결봉공의 변수	45
사모곡	51
《신곡》과 《인곡》의 궁합	58

김길련 편

술	66
황산기행	73

김운일 편

봉사소년이 의사로, 시인으로	85
-----------------------	----

한원국 편

불효자는 읍니다	102
다시 듣는 노래	114
꽃은 웃고 나는 울고	120

김창석 편

금쪽 같은 사랑	127
인사	136

김영금 편

영원한 유감 “5”자와 “8”자	143
마지막 정거장	148
농촌소풍 유감	151
잊을수 없는 한장의 사진	155

최홍자 편

돈을 팔아 유감을 사다	161
시계	165
억울하게 받은 심사	168
백년물만두인가	172

방룡주 편

황혼의 풍경	176
--------------	-----

컴맹	179
----------	-----

장진숙 편

2007년 가을의 걱정	183
사랑에는 정거장이 없다	192
“컴스타”녀인과의 만남	203

최기자 편

뼈꾸기종의 뼈꾸기소리	212
세월이 간들 잊으리오 눈 감은들 잊히리오	218
손톱미용을 하면서	223
어머님의 네차레 이사	228

김영자 편

혼	235
---------	-----

황장석 편

줄작비평	241
술잔 열개	248

전성호 편

문예 “상품화”에 대한 생각	253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생각	259

최균선 편

석양에 태운 상념	265
로옹의 춘정	271

4 * 단풍잎

언제나 빛을 건지는 단풍잎처럼...	274
내가 만난 그 사람	280

리태근 편

시름떡	285
연길사람	290
깨여진 고향의 반쪽얼굴	299

리홍규 편

1927년 3월 흑룡강성 소수분하(지금의 수양) 출생.

1946년 3월부터 《인민신보》, 《민주일보》, 《동북조선인민보》에서 근무.

1950년부터 중공연변주위선전부 간사, 부과장, 연변가무단 단장, 주문화처(국) 처장, 연변문련 주석, 연변작가협회 부주석 등 직무를 역임.

중국작가협회 회원, 연변작가협회 회원.

소설집 《개선》, 번역작품 《연안보위》 등 다수.



☆☆☆☆☆☆

위대한 모택동

간단치 않은 작가의 도 - “책 만권 읽고” “만리길 걷다”

위대한 모택동

한 사회주의나라 령수가 서거한후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극히 중대한 문제이다.

그 전쏘련의 령수 쓰딸린이 서거한후 쏘련공산당의 령도권을 찬탈한 흐루쇼브가 쓰딸린을 전적으로 부정해버렸다. 그때문에 전쏘련이 사상혼란에 빠졌을것은 물론이고 서방나라들에서는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을것이다.

쏘련이 해체되고 예리친이 대통령이 되여 자본주의를 완전히 복구시킨후에는 쓰딸린이 령도한 시기의 력사에 대한 평가가 더구나 부정적인것이였다. 뿌찐이 대통령으로 선거된후 쏘련의 력사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는것은 안정단결과 강대한 로씨야를 건설하는데 불리하다는것을 느끼고 “그래 우리의 아버지세대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고 대성 질호하였다. 이 말은 로씨야의 하늘에 우뢰소리가 터진듯 모든 로씨야사람들의 심금을 울려놓았다. 그뿐만아니라 뿌찐은 로씨야의 국가(国歌)를 제정할 때 쏘련국가의 곡을 그대로 쓰게 하였다.

뿌찐의 이런 명지한 처사에 대하여 중국공산당 당원의 한

사람인 나는 저도 모르게 솟구치는 감격을 억누를수 없었다.

쓰말린은 소련 붉은군대를 령도하여 파쑈 히틀러의 침략을 물리치고 소련을 구했을뿐만아니라 전인류의 해방사업에 크나큰 공헌을 하였다. 쓰말린은 위국전쟁에서뿐만아니라 소련사회주의건설사업에서도 위대한 공헌을 하였다. 소련이 미국과 맞서는 초대국으로 된 이 력사적사실은 쓰말린의 공로와 갈라놓을수 없는것이다.

나는 소련과 동구라파에서 극변이 일어나고 아울러 모택동동지가 서거한후 중국에서도 극변이 일어날수 있는 위기가 있었다고 본다. 그때 만일 모택동의 력사적지위를 쓰말린이 당한것처럼 처리했다면 그 어떤 사변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내가 1959년 후반기에 계급의 원쑤라는 영예스럽지 못한 감투를 쓰고 2년 동안의 로동개조를 거친후 감투를 벗긴 했지만 그후의 17년 동안 “감투를 벗은 우파”로 출판사, 5.7간부학교, 농촌과 공장으로 몰려다니다가 근 20년후인 1978년에 연길로 돌아왔을 때 나를 반갑게 맞아준 한 열빠한 친구가 나의 귀에 입을 대고 “모택동은 정말 나쁜 놈이지?” 하고 속삭이는것이였다.

이 친구는 내가 근 20년 동안이나 “개조”를 당했으니 아마 립장과 관점이 달라져서 자기의 “동지”가 되였다고 생각한 모양이였다.

그 친구는 “항일간부”라고 우쭐대는 로간부의 한 사람이였다. 모택동에 대해서 이렇듯 악담을 한 사실을 보면 중국의 극히 작은 일부분인 연변땅의 일부 인테리들가운데서도 일정한 사상혼란이 있었다는것을 알수있다. 다행히 모택동을 수반으로 한 중국공산당은 오랜 시련을 겪은 당이고 등소평과 같은 위대한 맑스주의자가 있었기때문에 그 전소련에서와

4 * 단풍잎

같은 비극은 상연되지 않았다.

듣는 말에 의하면 등소평은 세번 타도됐다가 세번 다시 일어선분이다. 그러나 그이는 모택동에 대하여 털끝만큼도 사감을 품지 않았고 바다와 같은 넓은 흉금으로 어디까지나 맑스주의의 “실사구시”의 원칙과 정신으로 모택동을 제대로 평가하였다.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력사문제에 관한 결의”를 기초(起草)할데 대한 의견에서(1980년 3월-1981년 6월) 등소평동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택동동지의 력사적지위를 확립해야 하며 모택동사상을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조목이다. 오늘뿐만아니라 금후에도 우리는 모택동사상의 기발을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

“1957년의 반우파투쟁은 역시 긍정해야 한다. 3대개조를 완성한후 확실히 한파의 세력 즉 반사회주의적인 사조가 있었는데 이것은 자산계급성질을 띤 것이었다. 이런 사조는 꼭 반격했어야 한다. 나는 여러번 말한적이 있다. 그때 어떤 사람은 확실히 살기등등하여 공산당의 령도를 부정했으며 사회주의 방향을 돌려세우려 했다. 반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 걸음도 전진할수 없었다. 착오는 확대화한데 있다...”

“총적으로 말하면 1957년 이전의 모택동동지의 령도는 정확하였다. 1957년 반우파투쟁후 착오가 갈수록 더 많아졌다. ‘10대관계를 론함’이라는 저작도 문제가 없으며 좋은 것이다. ‘인민내부 모순을 정확히 처리할데 관한 문제’도 훌륭한 저작이다. ‘1957년의 하기형세’에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등소평은 지적하였다.

“...총적으로 보면 건국후 17년 동안 곡절이 있었고 착오가 있었지만 기본적인 면에서는 역시 옳았다. 사회주의혁명

을 잘했다. 사회주의건설으로 진입한후에도 모택동동지는 훌륭한 문장을 썼으며 훌륭한 사상을 가지고있었다. 착오를 말할 때 모택동동지만 말해서는 안된다. 중앙의 많은 책임진 동지들에게도 다 착오가 있다. ...모택동동지는 착오를 범하긴 했지만 그것은 한 위대한 혁명가가 범한 착오이며 한 위대한 맑스주의자가 범한 착오이다.”

1981년 6월 27일에 채택된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의 건국이래의 당의 약간의 력사문제에 관한 결의”에서는 “모택동동지는 위대한 맑스주의자이며 위대한 무산계급혁명가이며 전략가와 리론가이다. 그는 비록 ‘문화대혁명’에서 엄중한 착오를 범하긴 하였으나 일생을 놓고보면 중국혁명에 대한 그의 공적은 그의 과실보다 훨씬 더 크다. 그의 공적은 첫째 자리를 차지하며 착오는 두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그이는 우리 당과 인민해방군을 창립하고 발전시켰으며 중국 각 민족 인민들의 해방사업의 승리와 사회주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영원히 마멸할수 없는 공훈을 세웠다. 그이는 세계 피압박민족의 해방과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중대한 공헌을 하셨다.”고 썼다.

결의는 또 “모택동동지를 주요대표로 한 중국공산당인들은 맑스—레닌주의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중국의 장기적인 혁명실천가운데서의 일련의 독창적인 경험에 대하여 리론적인 개괄을 함으로써 중국 정황에 알맞는 지도사상을 형성하였다. 이것이 곧 맑스—레닌주의 보편적진리와 중국혁명의 구체적인 실천이 결합된 산물—모택동사상이다.”

“모택동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중국에 운용하고 발전시킨것이다. 실천은 이것이 중국혁명에 관한 정확한 리론원칙이며 경험총결이란것을 말해주고있다. 동시에 이것은 중국공산당의 집체적지혜의 결정(结晶)이다...”

모택동동지에 대한 등소평의 담화와 중앙의 결의는 국내에서뿐만아니라 온 세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나에게 모주석에 대하여 악담을 했던 그 친구도 등소평의 말씀과 당중앙의 결의문을 읽었다면 꼭 자기 잘못을 느끼고 돌아섰을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그는 진정한 공산당원이 아니라고 본다.

모택동동지에 대한 중국인민의 애대와 존경의 정은 그 누구도 지워버릴수 없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하남성에 남가촌이라는 농촌마을이 있는데 3,500명의 인구가운데의 500명은 공산당원이라고 한다. 촌민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동방홍”노래를 유선방송으로 듣는다.

촌민들은 이른아침 해빛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1993년에 모주석탄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닦은 “동방홍”광장에 모여든다. 두 젊은 경위가 광장중심에 세워져있는 령수 모주석의 대리석조각상을 수호하고있다. 그리고 광장에는 또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의 크다만 초상이 세워져있으며 몇 10폭의 붉은기가 바람에 나뭇기고있다. 이 마을은 이 성에서 이름있는 유람지로 되고있다. 이 마을에 사는 고종교장 박복심은 “1978년 개혁개방이래 모든것이 비약적으로 변화되고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프랑스기자가 쓴 기사의 한토막이긴 하지만 남가촌사람들이야말로 아마 중국인민의 사상감정을 대표하는 전형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나는 어느때인가 길가에서 신을 수리하는 로동자와 한담을 나눈적이 있는데 모주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나는 그에게 “모주석은 중국력사상에서 유일무이한 위대한 인물이십니다!”라고 말하였더니 그는 단호히 “아닙니다. 그이는 중국에서뿐만아니라 세계력사상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위대한 인

물이됩니다!”하고 보충하는것이였다.

독일 전총리인 스미터는 2008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인상을 말할 때 여러번 모주석에 대하여 언급한적이 있다. 그는 “나는 모의 체도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모주석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이는 완전히 몰락한 중국을 다시금 일떠세웠다. 그 누구든지 모택동을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반드시 이런 성적을 승인해야 한다.”

“나는 중국사람은 아니지만 중국사람과 마찬가지로 그이에 대하여 탄복을 금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경보(鏡報)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국내에서 최근 출판한 《국외모택동연구역총》을 보면 모택동에 관한 연구기구가 수십개 나라에 근 100개소나 있으며 연구학자는 수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60여년래 발표한 저서는 1600부가 되며 논문은 만편이 넘는다고 한다. 보다싶이 모택동연구는 이미 세계적범위의 과제로 되었다. 이런 의의에서 말한다면 모택동은 중국에 속할뿐만아니라 세계에 속한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북경에서 출판되는 《로간부참고》라는 간물에서 “영원한 모택동”이라는 표제하에 외국학자들의 문장을 번역발표하면서 “모택동은 정치가, 사상가와 군사가, 시인을 한몸에 겸한 거인이시다. 어떤 각도에서와 어떤 층차에서 모택동을 연구하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하나의 광활한 영역과 무한히 개방된 공간이 존재하고있다.

중국학자들의 모택동연구는 왕왕 자신의 경력과 개인감정 그리고 사회력사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데다가 당대 정치학리론의 결핍으로 인하여 서방학자들처럼 모택동을 인류사상대사(大師)의 높은 층차속에 놓고 연구하지 못하고있다.”고 썼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서방학자들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자. 쓰화쯔(史华慈)는 수십년의 정력을 기울여 정치사상적의의에서 “모택동-루쏘”를 비교하는 연구에 종사하였다. 그는 이 두 거인의 정치사상은 모두 인류의 정치지식과 정치적인정에 대하여 거대한 영향을 일으켰다고 말하였다.

미국학자 마이·하트(迈哈特)는 력사적인물의 배열에서 보면 모택동의 위망은 워싱턴보다 더 높다. 왜냐하면 모택동이 국가에 가져다준 변화를 워싱턴이 국내에 가져다준 변화에 비기면 모택동쪽이 훨씬 더 많기때문이다. 모택동을 배열명차순서에서 보면 나뵈레옹, 알렉산더 등 사람들보다 썩 더

높다. 왜냐하면 세계의 장래에 대한 모택동의 영향은 가능하게 나뽀레옹 등 사람들보다 썩 더 많을것이기때문이다. 다른 미국학자 마이스너(迈斯纳)는 모택동 자신이 그가 처한 시대의 정치와 사회생활을 지배하였던것처럼 모택동의 유령도 마찬가지로 새시대의 정치의식을 지배하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 모택동시대는 중국현대공업혁명의 시기이며 또 세계력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현대화시대의 하나라고 인정하였으며 만일 모택동시대의 공업혁명이 없었다면 80년대의 중국경제개혁은 말할수도 없었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영국의 전수상 카라한도 오늘 세계에서 중국의 지위는 모택동에 대한 최대의 기념일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일찍 70년전에 중국사람들이 잘 알고있는 배쥬은 “모택동은 세계적으로 출중한 영재이다. 그는 이 세계를 개변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전쏘련의 한학자 베테린도 어쩌면 더 많은 극절을 겪고 서야 모택동을 진정으로 리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모택동은 중국의것일뿐만아니라 세계의것이기도 하다. 모택동은 서방내지 세계의 존경을 받고있다고 썼다.

2006년은 모택동 서거 30주년이며 탄신 103주년이었다. 이해에 모택동의 기일인 9월과 생일인 12월에 서방 허다한 국가의 주요한 TV방송국들에서는 연속 대형의 계열기록편 “MAO: A Life”를 방송하였다. 이 영화는 주로 영국방송회사가 전동아주재기자 베리푸쇼트가 쓴 《모택동전》에서 취재한 것이다.

영화에서는 모택동처럼 극히 위대한 인물의 일생에 있는 그의 모든 정치적결단에 대해서는 결코 간단하게 옳다 그르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모택동은 중국의 운명을 개변시켰고 그가 별세한 뒤 중화민족이 더 강대해

진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부인하지 못할것이라고 했다.

미국 군사작가 오분 해워는 모택동을 평론할 때 “그 누가 이렇듯 빈곤한 나라를 짧은 시간내에 신속히 세계강국의 행렬에 들어서게끔 쫓아내준 모택동만큼 할수 있겠는가고 말했다. 모택동이 자기 나라 인민들을 빈곤, 기아와 외부의 압력하에서 신속히 벗어나도록 령도한것을 보면 워싱턴을 훨씬 초과하는 위대한 성취를 취득하였다. 그는 하나의 빈약한 중국을 이때로부터 일떠서게 하였으며 소련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우리 미국에 대해서는 더구나 무서워하지 않았다. 나의 나라 미국이며, 그대는 이 위인(伟人) 모택동을 영원히 기억하시라!”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청소년들은 어떠한가? 남가촌 고종교장은 프랑스기자에게 “지금 자라고있는 청소년일대를 우리와 비교한다면 모주석을 본보기로 삼는 비율이 적어졌다. 많은 젊은 이들은 명가수, 명영화배우만 숭배한다.”고 말하였다. 내가 잘 아는 한 아주머니는 “초중에 갓 붙은 손자놈이 나에게 모택동은 어떤 사람인가고 묻지 않겠소!” 하고 어이없어하였다. 이것들은 특수한 레이겠지만 우리가 심사숙고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모택동주석의 손자 모신우(38세)는 중국인민대학 력사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중령(中校)으로서 군사학원 연구원으로 일하고있다. 그는 지난 2000년 중앙당교 당사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군사학원으로 옮겨가서 3년 동안 모택동의 군사사상과 군사전력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모신우는 금년 정치협상회의에 참가했을 때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모주석에 대한 불공평한 평가를 보면 제일 화가 난다”고 말했다.